

부분양심실 교정술

폰탄수술 대안으로 유용

우심실 형태·기능 양심실 교정술시행 힘들때 다양한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에게 적용 가능

서울대병원 金容珍교수팀

우심실의 형태나 기능이 양심실 교정술을 시행하기 힘든 환자에게는 부분양심실 교정술을 폰탄수술의 대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金容珍 교수팀은 93년 6월부터 98년 3월까지 이병원에서 부분양심실 교정술을 시행받은 10명의 환자(평균연령 62.4개월)를 추적관찰하고 이같이 밝혔다.

金교수팀에 따르면 부분양심실 교정술후 숨진 환자는 1례에 그쳤으며 수술에 의한 합병증은 유미흉에 의한 장기입원 2명, 양측성 횡격막 마비 1례, 심방세동 1례였다.

추적관찰기간은 평균 15.1개월이었으며 이 기간중에 후기사망이나 재수술은 없었고 생존한 전환자에서 NYHA class I의 상태를 유지했다고 金교수팀은 설명했다.

金교수팀은 또 수술전 환자 들은 △에브스테인 기형 4명 △폐동맥폐쇄증 3명 △양대혈관 우심기시증과 심실중격결손증 폐통맥협착증으로 Rastelli 수술 1명 △완전대혈관 전위증등으로 동맥치환술 시행후 부분양심실 교정술과

삼천판막 성형술 1명 △방실중격결손증으로 폰탄수술 1명이었다.

한편 金容珍 교수는 『일부의 체정맥 혈류만을 우심실에

의해 박출함으로써 폰탄환자들은 보다 나은 혈액학을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분양심실 교정술은 다양한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혈관 감압술

난치성 이명 환자에 卓效

청신경을 뇌혈관으로부터 분리시켜 인공혈관 소재인 Teflon으로 벽을 감싸주는 수술법인 미세혈관 감압술(MVD)이 난치성이명 환자에게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양의대 신경외과 고용교수는 기존 약물요법이나 레이저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얻지 못했던 난치성이명환자 59명을 대상으로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하고 이들의 상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약90%에서 증세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고교수는 환자 만족도와 Tinnitogram을 기준으로 치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상태가 75%이상 호전된 경우가 50.8%, 50~75% 호전 35.6%, 50~25% 호전 6.8%, 25% 미만

6.8%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청력에 이상이 있었던 9명의 경우 이 수술후 청력이 10dB까지 개선됐다고 말했다.

고교수는 이 수술법은 흉터 및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도 함께 갖추고 있어 앞으로 난치성이명 치료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